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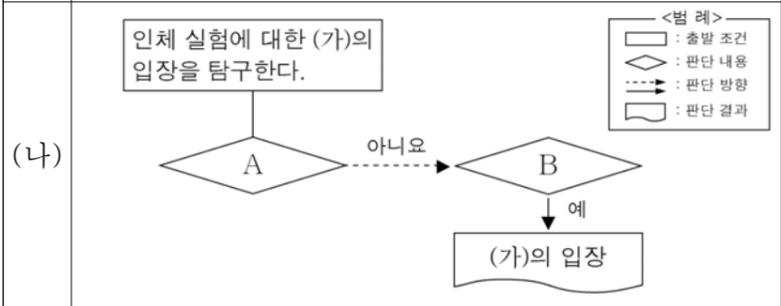
6. 갑, 을, 병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랑이 없는 성적(性的) 관계는 비도덕적이다. 사랑은 성의 고유한 가치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시킨다.
 을: 남녀가 결혼이라는 사회적 승인을 거쳐서 출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병: 자발적 동의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성적 관계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 ~이 | ~에게 | 비판 내용 |
|---|----|-----|---------------------------------------|
| ① | 갑 | 을 |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능을 간과하고 있어. |
| ② | 갑 | 병 | 상대방을 자신의 쾌락 충족을 위한 도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어. |
| ③ | 을 | 갑 | 성이 지닌 인격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어. |
| ④ | 병 | 갑 |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를 옹호하고 있어. |
| ⑤ | 병 | 을 | 정당한 성적 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어. |

7. (가)의 내용을 (나)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인체 실험은 반드시 윤리적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윤리적 기본 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윤리적 기본 원칙의 주요 내용 >
 1. 인체 실험은 승인된 과학 원칙을 따르고, 실험 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
 2. 인체 실험의 목적과 방법, 위험성 등에 관하여 실험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실험 대상자가 실험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4. 실험 대상자의 이익은 과학 발전과 사회의 이익에 앞서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 ① A: 실험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 ② A: 실험 전에 실험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③ B: 실험의 자유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④ B: 실험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야 하는가?
- ⑤ B: 실험 대상자 보호를 위해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한가?

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새로운 윤리학은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위의 귀결이 미래에도 인간이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는 명제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보기>
 ㄱ. 장기적 예측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ㄴ.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ㄷ. 미래 세대의 이익만을 위해 자연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ㄹ. 현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9.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동식물과 같은 존재에 대한 도덕적 고려는 인간의 이익과 관련될 때에만 가능하다.
 을: 인간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춰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도덕적 고려의 범위는 생태계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

- ①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 ②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은 인간과 동물뿐인가?
- ③ 자연은 인간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수단인가?
- ④ 생명이 없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가?
- ⑤ 인간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에 대해 직접적 의무를 지니는가?

10. 그림은 어느 학생의 필기 내용이다. ㉠ ~ ㉤ 중 옳지 않은 것은?

◎ 단원명: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1. 안락사의 의미
 :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의료적 행위.

2. 안락사 찬성의 근거
 · 인간의 자율성을 중시해야 한다. ㉠
 · 환자의 삶의 질을 고양해야 한다. ㉡

3. 안락사 반대의 근거
 · 인간 생명의 보존을 중시해야 한다. ㉢
 · 환자 가족의 경제적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 ㉣
 · 생명에 대한 비도덕적인 협상을 방지해야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나)의 그림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 친족(親族)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그 범위로 한다.
- 항렬(行列)은 친족 사이에서 순위나 손아래 또는 세대를 나타내며, 촌수(寸數)는 친족 간의 가깝고 먼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다.

(나)

- ① 할아버지와 나는 항렬이 다르다.
- ② 어머니와 A 사이는 인척 관계가 성립한다.
- ③ A가 아버지의 동생일 경우 나에게 A는 숙부이다.
- ④ 나와 중형제는 할아버지가 같으므로 촌수가 5촌이다.
- ⑤ 형제와 중형제는 나와 촌수가 다르지만 항렬은 같다.

12.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해.

너의 주장을 삼단 논법으로 정리한다면 칠판의 내용과 같겠군.

대전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소전제: ㉠
 결론: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① CCTV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면 인권을 신장할 수도 있다.
- ②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CCTV를 설치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④ CCTV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면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 ⑤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13.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교사: 어느 사상가는 “인간은 세계-내-존재로,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자기의 것으로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 죽음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가의 말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학생: _____ ㉠ _____

- ① 죽음을 직시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 ② 죽음은 회피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 ③ 죽음은 윤회의 과정이기에 다음 생을 대비해야 합니다.
- ④ 죽음은 감각의 소멸이므로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합니다.
- ⑤ 죽음을 기(氣)가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14.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의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적으로 선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한다. 즉,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한 사람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 문제 상황 >

A는 평소에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로 부터 자주 듣고 고민 중이다.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인상을 준 것 같아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언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 ② 인사를 습관화하여 자신의 행위로 내면화해야 합니다.
- ③ 인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 ④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규범의 효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⑤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보편적 도덕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15. 다음 대화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장기 이식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식의 절박성,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 조적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오래 기다린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장기를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병: 하지만 제한된 장기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분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①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장기 이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 ③ 장기 분배는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④ 장기 이식과 분배를 하는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
- ⑤ 장기 분배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6.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것이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기준이 유일하게 옹호되는 이유이다. |
| (나) | 공장식 가축 사육이란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듯이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사육을 당하는 동물들은 비좁은 축사에 갇혀 있는데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질병에 시달리곤 한다. |

- ① 인간과 동물의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②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을 지속적으로 사육해야 한다.
- ③ 모든 생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④ 인간의 생존을 위해 동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육해야 한다.
- ⑤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

17.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원 부족을 해결하려는 원자력 기술이 국가 간의 전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이 낳는 부정적인 결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학 기술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하더라도 이는 과학 기술을 이용한 사람들의 잘못이지 연구한 과학자가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 ① 과학 기술의 발전을 무시하는
- ② 과학 기술의 효용성을 간과하는
- ③ 과학 기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 ④ 과학 기술을 가치중립적으로 보는
- ⑤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18.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 ~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현실 공간이 사이버 공간과 다르듯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 공간의 규범과 다른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

(나)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은 모두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간이므로 사이버 공간의 규범은 현실 공간의 규범과 다르지 않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낙태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갑: 태아는 임신한 순간부터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을: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니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임신한 여성이 건강상의 이유로 낙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 기>

| | | | |
|--------------------------|-----|------------------------------------|-----|
| | |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없는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할 수 있는가? | |
| | | 예 | 아니요 |
|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잠재적 지위를 지니는가? | 예 | A | B |
| | 아니요 | C | D |

- | | | | | |
|-----|---|--|-----|---|
| 갑 | 을 | | 갑 | 을 |
| ① A | B | | ② B | A |
| ③ C | B | | ④ C | D |
| ⑤ D | A | | | |

20.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는 주로 모내기·김매기 때와 같이 대규모의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투입해야 할 때 시행되었으며, '농계(農契)', '길쌈' 등으로 불렸다. 그리고 줄다리기, 편싸움 등의 오락을 즐기기도 하였다.

○ (㉡)은/는 선(善)을 권장하고 악(惡)을 징계하는 마을의 세칙이었다. 선에 관한 사항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 어려울 때의 조력 등이 있었고, 악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불효, 약자에 대한 냉대와 무시 등이 있었다.

- ① ㉠은 유교적 덕목과 예절 함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 ② ㉠은 모든 경작지에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 ③ ㉡은 오락의 기능보다 공동노동을 더 중시하였다.
- ④ ㉡은 개인적 친분에 따라 조직되어 일손을 나누었다.
- ⑤ ㉠, ㉡은 모두 이웃 간에 서로 돕는 것을 강조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